

## 문학독본과 選의 정치학\*

—방종현·김형규의 『文學讀本』을 중심으로—

박형준\*\*

### <차 례>

- I. 들머리 : 문학교육, 문학독본, 문학정전
- II. 『文學讀本』의 텍스트 변증
- III. 『文學讀本』의 형식과 정전 형성의 과정
- IV. 마무리

## I. 들머리 : 문학교육, 문학독본, 문학정전

문학은 문학 그 자체의 논리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교육, 정치, 사회, 경제 등의 분야와 상호 연동하면서 존재한다. 특히, 문학교육제도는 문학정전을 구성하고 해석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문학장의 중요한 작동 기제 중 하나이다. 문학 담론을 생산해내는 문학제도의 심층 논리는 문학교육제도를 통해 승인되고, 또 반복 재생산된다. 이처럼 문학제도의 이데올로기와 논리를 재생산하는 문학교육제도의 구체적 양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교과서이다.

문학교과서는 한 국가의 개별 구성원을 언어·문화 공동체로 구성하

---

\* 이 논문은 2009년 11월 20일 동국대학교 BK21 한국어문학에서의 전승과 번역 연구인력 양성사업단에서 개최한 제1회 한국어문학 차세대 포럼에서 「문학독본과 문학정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강사

는 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는 문화적 집적물이자 전달 도구이다. 문학 교과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내용과 형식을 수렴하면서, 혹은 그것에서 탈주하면서 국민 국가의 이념적, 언어적, 문화적 동질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문학교과서는 문학교육의 도구적 기능을 넘어서, 문학 텍스트의 정전 구성과 감상, 해석, 평가의 정당성과 가치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이처럼 문학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문학제도와 문학교육제도의 관계망을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된다. 정재찬(1996)에서 국정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문학정전의 형성 과정을 고찰한바 있다. 이 연구는 문학정전의 형성 배경을 문학장의 논리와 담론적 층위에서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인 글이다. 그러나 해방 직후, 군정청 문교부에서 발행한 국정 국어교과서 『중등국어교본』의 보급률이 정부 수립 직전까지 1/50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참조한다면, 이 연구의 제한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인식을 보다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국정 국어교과서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형식의 검인정 국어교과서와 문학교과서, 유인본 국어교과서와 문학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이 공식적으로 실행(1956. 3)되고 본격적인 교과서 검인정 규정이 실시(1950. 4)되기 이전에는 검인정 문학교과서와 자유발행제로 편찬된 문학교과서가 국어과의 중요한 교수·학습 매체로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국어교육사 연구에서 일부 연구가 이루어진바 있으나(박봉배, 1997; 최현섭, 1990; 김혜정, 2004), 본격적인 텍스트 고증과 의미 부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 논문에서는 방종현·김형규의 『文學讀本』을 중심으로 문학교과서의 역사적 연구를 위한 방법론을 마련하고자 한다.<sup>1)</sup> 방종현·김형규의 『文

1) 이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첫째, 해방 직후인 1946년에 초판이 발행되어 근대적 문학교과서가 형성된 맥락 속에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대적인 교과서 정비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를 기점으로 하여 수정 발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1949년에 ‘문학독본’이라는 종별에서 유일하게 검인정을 통과한

『文學讀本』은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구성된 ‘독본(讀本)’, 즉 중별 분류 기준에 따르면 ‘문학독본’<sup>2)</sup>이다. 이것은 체계적인 검인정 시스템이 작동하기 이전부터 문학제도와 문학교육제도의 관계망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으며, 체계적인 검인정 시스템 이후에도 제도교육의 문학교과서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한다. 방중현·김형규의 『文學讀本』은 해방공간 독본(류) 교과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문학교육사적으로 중요한 텍스트이다. 독본은 전통적인 교재 구성 방식 중 하나인데, 읽기의 ‘本’이 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選’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고, 제재에 대한 저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문학정전이 “역사가 아니라 전통이며 사실이 아니라 일종의 가치 개입적 행위”(정재찬, 2004)라는 사실, 따라서 문학정전은 공동체의 이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참조할 만하다. 왜냐하면 저자에 의해 선택된 제재는 시간의 누적과 문학·교육공동체의 승인 과정을 통해 정전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방 직후에 발행된 문학독본은 하나의 현상이자 이념이며, 문학교육제도의 역사적·다층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렌즈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해방 직후의 대표적 문학독본인 방중현·김형규의 『文學讀本』을 통해 중등학교 검인정 문학교과서 형성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동시에 문학독본의 형식과 ‘고전’으로 표상되는 문학정전을 창출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넷째, 수정 발행 이후, ‘選’이라는 형식을 통해 ‘고전’으로 표상되는 문학정전을 (재)구축하는 논리와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 2) 문학독본은 아직까지 체계적인 조사와 유형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독본(류) 국어교과서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해방 직후, 문학독본은 제도/비제도권에서 다양한 발행 분포를 보인다. 또한 그것은 본격적인 검인정 시스템이 적용된 1950년대에도 확대·재생산된다. 구체적인 자료 조사와 유형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겠으나, 본고에서는 방중현·김형규의 『文學讀本』을 중심으로 하여 문학독본 연구의 토대 작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문학독본’이라는 용어는 문학독본 일반을 지칭하는 것이며, 방중현·김형규의 『文學讀本』을 지칭할 때에는 ‘『文學讀本』’으로 쓴다.

## II. 『文學讀本』의 텍스트 변증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편찬 방식은 국가의 개입 여부에 의해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은 국정 교과서, 검정 교과서, 인정 교과서 등으로 분류되며, 교과서 출판 상황이 여의치 못했던 해방 직후에는 자유발행 교과서도 포함할 수 있다.<sup>3)</sup> 해방 직후에는 활자, 용지, 인쇄 시설 등의 부족으로 교과서의 정상적인 출판과 보급이 어려웠다. 초등학교의 교과서 보급은 “필요 권 수의 20분의 1에 불과”하였으며, 중등학교는 “필요 권 수의 약 50분의 1밖”<sup>4)</sup>에 보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검인정, 혹은 자유발행 형식으로 발행된 국어(문학)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방중현·김형규의 『文學讀本』은 1946년 9월 20일 東省社에서 발행되었다. 이 책의 판형은 4·6판(128mm×182mm)이며, 분량은 146쪽이다. 중등학교 국정 국어교과서『중등국어교본』의 발행일자가 1946년 9월 1일이라는 점에서 『文學讀本』은 국어과 교과용 도서의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이 책의 목적은 “大學豫科 專門學校 高級中學 같은 程度의 上級班에 쓸 國語教科書로 쓸까하고 만”<sup>5)</sup>은 데 있으며, “第一週年 맞이하는 解放記念日”을 전후하여 발행되었다. 1951년 3월 20일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학제(6년제)를 분리하기 이전에는 중등학교 교육과정이 6년제(초급 중학교정 3년, 고급 중학교정 3년)로 운영되었다. 즉, 『文學讀本』은 “高級中學”과정, 즉 현재의 고등학교급에 해당하는 국어과 문학 수업을 위한 교재, 혹은 부독본으로 사용하기 위해 편찬·보급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3) 유인본 국어교과서는 인정제 국어교과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유인본 국어교과서의 출판 형식은 자유발행제에 가까우며, 교수·학습의 주체인 교사가 직접 편찬한 것이기는 하지만 ‘교과용도서 검인정령’에 통제를 받는 교과서는 아니다(박형준, 2008 : 67). 해방 직후, 유인본 국어교과서는 국정, 혹은 검·인정 국어교과서의 보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국어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생산·존재하였다.

4) 《서울신문》, 1948. 1. 28.

5) 방중현·김형규(1946), 「例言」, 『文學讀本』, 동성사.

1946년 12월 20일에 장정을 새롭게 한 『文學讀本』(동성사, 1946)이 발행되었으나, 제재 선정 및 내용에 대한 차이는 없다.

방중현·김형규의 『文學讀本』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 해방 이후, 다양한 성격과 유형의 문학독본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은 이 책이 문교부의 검인정 승인을 받은 교과용 도서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중등학교 교과서는 국정·검정만 사용하도록 결정”<sup>6)</sup>하였으며, “부독본으로 인정 허가를 받은 도서에 한하여 학교장의 임의로 보충을 위하여 부독본으로 사용”<sup>7)</sup>하도록 지시한다. 교과서의 출판 및 보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인정 시스템이 실질적인 통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으나, “비양심적인 교과서의 숙청”<sup>8)</sup>이라는 명목 아래 “1949년 9월 신학기부터 쓸 교과서에 대한 검인정 신청은 1949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접수”하여 심사되었다.

방중현·김형규의 『文學讀本』은 『新訂 文學讀本』이라는 서명으로 서울 연학사에서 1949년 8월 20일에 수정 발행된다. 이 책의 판형은 국판(148mm×210mm)이며, 분량은 174쪽이다. 속표지에 “文敎部 認定畢”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認定 年 月 日”은 “4282年 8月”, 그 내용은 “正式副教科書로 使用함을 許可함”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sup>9)</sup> 즉, 『文學讀本』은 『新訂 文學讀本』이라는 서명으로 1949년 8월에 교과용 도서 검인정 심사를 통과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1949년 <검인정 교과용 도서 발행 상황>을 확인하여 보면, 국어과 ‘문학독본’에서 검인정을 통과한 종수는 1종, 책수도 1종이다(허강 외, 2000 : 117). 그리고 <국어과 검인정 허가 종별 통계표>를 확인하여도 마찬가지이다.<sup>10)</sup>

6) 《경향신문》, 1949. 7. 29.

7) 《서울신문》, 1949. 7. 2.

8) 《국제신문》, 1948. 10. 7.

9) 방중현·김형규(1949), 『新訂 文學讀本』, 연학사.

10) 문교부 편수국(1950), 『편수시보』 제1호,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0쪽.

〈표 1〉 국어과 검인정 허가 종별 통계표(단기 4282년도) - 요약 자료

과 목	검인정별	초중등별	一	二	三	四	五	六	비고
국어	인정	중등	4	4	4	3	2	1	
문학독본	인정	"							1
옛글	"	"							1

국어과 문학독본 종별에서는 1949년 8월 20일에 『新訂 文學讀本』이 유일하게 검인정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인 셈이다. 1952년 朝文社에서 발행한 『新訂 文學讀本』의 판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속표지에 “검인정의 구별”은 “인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1949년 8월 20일에 검인정을 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검인정 교과서의 유효 기간은 1년이었는데(허강, 2004 : 94), 1951년 7월 20일에 검정 효력이 연장되었다. 판권면(뒷표지 앞면)에도 1949년 7월 30일에 초판을 발행, 1950년 6월 20일에 수정 발행, 1952년 4월 5일에 5판을 발행 등의 발행사항이 기록되어 있다.<sup>11)</sup>

공식적인 검인정 시스템이 작동되기 이전에는 제도의 바깥 — 실제로는 제도권 내에서 국어과 문학교과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 에서 존재하고 있던 문학독본의 제도권 승인이 1949년 교과서 정비 시점에 맞추어 공식화 되었던 것이다. “檢定の 目的”이 “남녀중등학교 국어(실업)과 교과서”(괄호-인용자), 혹은 “高等學校 國文科 教科書”<sup>12)</sup>에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데, “大學豫科 專門學校 高級中學 같은 程度의 上級班에 쓸

11) 『新訂 文學讀本』의 초판 발행일자는 1949년 8월 20일(1949년 연학사 출판본), 1949년 7월 30일(1952년 조문사 출판본)로 되어 있다. 이것은 조문사 출판본이 최초 검정일자를 초판 발행일로 잡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일부 출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속표지에는 “검정효력 연장 년 월 일”이 1951년 7월 20일로 되어 있으며, 판권면(뒷표지 앞면)에는 “검정효력 연장 년 월 일”이 1951년 7월 15일로 되어 있다. 방중현·김형규(1952), 『新訂 文學讀本』, 조문사.

12) 속표지에는 “검정의 목적”이 “남녀중등학교 실업과 교과서”라고 되어 있으며, 판권면에는 “검정의 목적”이 “고등학교 국문과 교과서”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1953년 4월에 발행된 6판 속표지에는 “검정의 목적”이 “남녀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로, 판권면의 “검정의 목적”이 “고등학교 국문과 교과서”로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방중현·김형규(1952), 『新訂 文學讀本』(5판, 조문사; 방중현·김형규(1953), 『新訂 文學讀本』(6판, 조문사).

國語教科書로 쓸까하고 만들(어보)았'던 자유발행 형식의 『文學讀本』과는 그 성격과 위상이 크게 변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중현·김형규의 『文學讀本』이 공식적인 검인정 절차를 통해 “高等學校 國文科 教科書” 『新訂 文學讀本』으로 승인되는 과정은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교부의 검인정에 대비하여 내용을 새롭게 바로잡은(新訂)은 『新訂 文學讀本』은 교과용 도서로서의 성격과 위상만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내적 체제와 제재 구성의 논리가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문교부 교과서 검인정의 원칙이 “대한민국 국책에 어긋나는 모든 사상을 전적으로 배제”<sup>13)</sup>하는 데 있었기 때문인데, “문교부에서는 이의 실천방법으로 금후 사상적으로 불순하다고 인정되는 교과서를 발견하는 때에는 그 삭제를 지시하”였다.

문교부는 교과서 검인정을 마친 후, “친일작가의 작품은 물론 좌익작가의 작품도 모두 삭제해서 발간”<sup>14)</sup>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이것은 『文學讀本』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다. 그 내용을 도식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형준, 2009).<sup>15)</sup>

13) 《한성일보》, 1949. 11. 11.

14) 《한성일보》, 1949. 10. 5.

15) 선행 연구에서 일부 다루었으나, 당시에는 연학사 출판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제재 구성의 형식과 내적 논리도 과해치지 못하였다. 연학사 출판본을 확인한 결과 『新訂 文學讀本』의 초판은 1949년 8월 20일에 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초판 발행일자를 1949년 7월 30일로 제시한 것을 이 지면을 통해 수정한다. 참고로 선행 연구(박형준, 2009 : 296)에서는 방중현·김형규의 『文學讀本』에 관한 연구보다 정부 수립 전후의 문학교육제도 형성 배경과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 문학교육제도의 형성 배경이 되는 문학, 문화, 교육계의 내·외적 조건, 예를 들어, 1) 문학계-교육계의 상호 이념교섭, 2) 홍익인간 교육이념의 수립과 일민주의 교육 정책 등을 통한 반공주의 지향, 3) 교육 소통 주체(좌익 성향의 교사와 학생)에 대한 처벌과 교육 매체(교과서)에 대한 통제를 통한 반공정책의 가시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방중현·김형규의 『文學讀本』에 대한 본격적인 텍스트 고증과 의미 해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표 2>는 앞의 논문에서 제시한 것이지만, 논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제시한다.

〈표 2〉 방중현·김형규 『文學讀本』과 『新訂 文學讀本』의 수록 제재 비교

	동성사, 1946. 9. 20.	연학사, 1949. 8. 20.
전체 구성	• 전체 3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 문학 제재가 17장, 고대문학 제재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체 3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 문학 제재가 10장, 고대문학 제재가 2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문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태준 : 「물」, 「冊」</li> <li>• 현진진 : 「불국사에서」</li> <li>• 장덕조 : 「국화」</li> <li>• 이은상 : 「竹頌」</li> <li>• 이효석 : 「落葉을 태우면서」</li> <li>• 양주동 : 「蠟燭雜記」</li> <li>• 김진섭 : 「窓」</li> <li>• 문일평 : 「藝術의 聖職」 「百濟의 歌謠」</li> <li>• 박종화 : 「湯水俱水의 二老」</li> <li>• 정지용 : 「逝往錄」</li> <li>• 민태원 : 「青春禮讚」</li> <li>• 엄홍섭 : 「진달래」</li> <li>• 이병기 : 「僧伽寺」</li> <li>• 안재홍 : 「春風千里」</li> <li>• 17장 '詩' 단원에서 김억, 정지용, 김기린, 임학수, 모운숙, 노천명의 시를 각각 한 편씩 수록하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재홍 : 「민족문화의 진로」</li> <li>• 문일평 : 「예술의 성직」</li> <li>• 민태원 : 「청춘예찬」</li> <li>• 이은상 : 「죽송」</li> <li>• 양주동 : 「노변잡기」</li> <li>• 김진섭 : 「채루송」</li> <li>• 김광섭 : 「수필문학 소고」</li> <li>• 유진오 : 「소설론」</li> <li>• 정인보 : 「순국 성령 추모념」</li> <li>• 조유제 : 「“은근”과 “근기”」</li> <li>• 10장 '詩' 단원에서 김억, 조지훈, 노천명의 시를 각각 한 편씩 수록하고 있다.</li> </ul>
고전문 구성	• 「베를 노래」, 「時調」 등이 고전문학 제재가 18장에서 25장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26장부터는 「두시언해」 등 중세국어문법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 시조, 고전소설, 가사, 고려가요, 향가 등 다양한 작품이 장르별로 수록되어 있다. 동성사 판본에 비해 고전문학 제재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연학사 발행본에서는 기존의 동성사 발행본에 수록되어 있던 제재가 대폭 삭제되거나 대체된다. 문교부에서 제시하는 검인정 기준에 적합한 제재 선정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새롭게 바로잡은(『新訂』) 것이었다. 이것은 문학제도 형성의 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데, 『文學讀本』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교과용 도서에 수록된 제재의 삭제/대체 양상을 반공주의로 환원하는 논리가 그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은 문학제도나 문학교육제도가 반공국가의 형성 기제로 작동하는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다.<sup>16)</sup>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을 교육장의 구조 변동에 의한 이념적 체질 개선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문학교육제도가 지닌 상대적 자율성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지 않다. 문학교육제도가 정치·경제·문화적 자장 속에 놓여 있고, 그 영향 관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학교육제도는 반공주의 정치체제, 문학단체의 권력구도 속에서도 어느 정도 자율적인 의지 표명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文學讀本』의 제재 선택·배제·대체 과정은 문학교육제도의 외적 메커니즘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sup>17)</sup> 방중현·김형규의 『文學讀本』을 비롯한 문학독본(류)의 형식적 특징, 정전 구성의 논리와 그 효과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

### III. 『文學讀本』의 형식과 정전 형성의 과정

#### 1. ‘選’이라는 이데올로기 형식

해방 직후에 발행된 문학독본은 ‘임시 교재’ 및 ‘부교재’의 성격을 지

16) 김득중(2009 : 48)의 연구에 따르면, 여순사건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 사회 전체를 반공체제로 재편하였다고 한다. 국가폭력과 법제적 장치, 이념적·사회적 기제가 어우러지면서 반공체제를 형성한 것인데, 문학회·교육계의 이념적 재편 과정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였다.

17) 예를 들어, 한국전쟁이 편찬한 『중학생 문예독본』 3권에는 이무영, 강경애, 엄홍섭 등의 짧은 글이 수록되어 있다. “짧은 문법(文範)”이라는 형식이 이러한 구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미 엄홍섭의 글은 국정 국어교과서에서 삭제된 경험이 있다. 따라서 반공체제에 따른 논리만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장만영 엮음(1952), 『중학생 문예독본』 1~3권, 대양출판사 ; 장만영 엮음(1952), 『고등 문예독본』, 대양출판사.

니고 있었으나, 실제 학교교육의 현장에서는 정식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학독본은 국정 국어교과서와 달리, 교수요목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이종국, 2008 : 130). 따라서 이 시기의 문학독본은 철저하게 편저자의 감식안에 의해 제재를 선택하고 또 배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교재 구성 방식인 ‘선(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sup>18)</sup> 교수요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이념, 학습 목표성취 기준, 학습 내용 등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대신 문학 학습 제재 선정의 기준이 일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二. 내용은 前半은 現代글을 後半은 古代文을 讀었다. / 三. 教材는 現代作家中에서 되도록 여러 사람의 글을 文體도 隨筆 紀行文 詩 論文들 넓게 뽑으려고 하였고 또 古代文에서도 小說 短文 時調 歌詞 民謠에서 擇하였고 또 龍飛御天歌 月印釋譜 杜詩諺解 같은 것을 넣은 것은 文學的 價値보다도 우리말의 變遷의 歷史를 아울러 가리킬 機會를 주어볼까 한 것이다. / 四. 教材의 內容은 平易하고도 教育的인 것을 뽑으려고 힘썼고 教材의 配列은 難易도 考慮하였지만 現代글에서는 初秋부터 始作하는 氣候關係를 보고 古代文은 年代順으로 하였다.<sup>19)</sup> (강조-인용자)

편저자는 머리말에 해당하는 “例言”에서 “여러 사람의 글” 중에서 “넓게 뽑으려고 하였”으며, 그리고 “擇하”였으며,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것을 “뽑으려고 힘썼”다고 하여, 다양한 문학 텍스트 중에서 가려 뽑는 방식, 즉 ‘選’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문학독본의 전통적인 형식이자 존재 방식인데, 해방 직후의 다양한 문학독본에서도 이와 동일한 형식을 발견할 수 있다. 박장희의 『國文學選』에서는 “現在及 過去의 朝鮮文學作品인 小說, 詩, 時調, 歌謠, 隨筆 中에서 文學的 價値가 있는 것을 探擇”<sup>20)</sup>한다고 하였으며, 이하운은 『現代國文學精髓』에서 “國語와 文學

18) 전통적으로 독본은 편찬자가 ‘정수’라고 여기거나 ‘모범’이 될 만하다고 판단하는 글들을 뽑거나 지어서 묶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편찬될 당시의 담론과 일정한 지향이 그것의 체제와 내용으로 반영된다(구자황, 2007 : 198).

19) 방중현·김형규(1946), 「例言」, 『文學讀本』, 동성사.

의 指針이 될 만한” “選集”<sup>21)</sup>을 내놓는다고 하였으며, 양주동의 『詳註 國文學古典讀本』에서는 “國文學 古典의 代表作이라 할 만한 것을 가려”<sup>22)</sup> 뽑았다고 하였다.

‘本’, ‘選’, ‘精髓’는 일치하는 존재 방식이며, ‘選’이라는 형식을 통해 구체화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은 편저자에 의한 ‘擇’, 즉 독본에 수록될 작품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때의 ‘擇’은 선택이면서, 동시에 배제 행위이다. ‘選’은 문학 작품에 대한 과거의 가치 평가와 당대의 문학 담론, 편저자의 문학관 및 가치관을 총체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자 방법이며, ‘擇’은 그것의 실현 행위이다. 그리고 제도권의 바깥에서 존재하던 문학독본이 제도권 내에서 승인—예를 들어, 문교부에서 제시하는 검인정 기준에 적합한 제재를 선정하기 위해 내용을 새롭게 바로잡은(新訂) 『新訂 文學讀本』의 경우처럼—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선택-배제-(선택)’, 혹은 ‘선택-배제-대체’라는 기제가 ‘擇’이라는 행위에 내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例言”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성사에서 발행된 『文學讀本』에는 현대문학 고전문학 작품을 장르별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또한 현대문학 영역의 경우, 박종화, 문일평, 이병기 등의 작품과 함께 이태준, 정지용, 김기림, 엄홍섭 등 월북(및 남북) 작가의 작품을 균형감 있게 배치하고 있다. 또한 “龍飛御天歌 月印釋譜 杜詩諺解 같은” 제재를 수록해 “우리말의 變遷의 歷史를 아울러” 학습할 수 있게 하여 고전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국어지식 학습까지 고려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해방 직후, 국정 국어교과서 개발과 심의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편저자 방중현·김형규의 균형 감각이 돋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0) 박장화(1946), 「凡例」, 『國文學選』, 대동사.

21) 이하윤(1946), 「例言」, 『現代國文學精髓』, 중앙문화협회.

22) 양주동(1948), 「凡例」, 『詳註 國文學古典讀本』, 박문서관.

## 2. ‘選’의 작동 기제와 배제의 논리

『文學讀本』 편저자의 ‘균형’ 감각은 1949년 8월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균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문학교육제도의 바깥에서 이념 중재의 기능을 수행하던 문학독본은 균질화된 정전 생산을 지향하게 된다. 1949년 대대적인 수정 발행이 이루어지는 『新訂 文學讀本』을 통해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文學讀本』은 문교부의 검인정에 대비하여 ‘選’의 내용을 새롭게 바로잡는(“新訂”) ‘擇’ 작업을 한다. 이 “新訂”과정에서 ‘선택-배제-(선택)’의 기제와 ‘선택-배제-대체’의 기제가 다시 한 번 작동한다.

『新訂 文學讀本』에서 ‘선택-배제-(선택)’의 기제의 작동 양상은 다시 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앞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태준, 이효석, 엄홍섭, 정지용, 김기림, 임학수 등 월북하였거나 좌익 성향의 문학운동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삭제 조치한 것이다. 문교부의 검인정에 대비하여 삭제 조치된 이태준의 「물」, 「冊」, 엄홍섭의 「진달래」, 정지용의 「逝往錄」, 「海峽」, 김기림의 「太陽의 風俗」, 임학수의 「조선의 소녀」 등의 작품은 전혀 이념적 색채를 띠지 않는 것이었다. 이념적 무소속 작가와 전향 작가에 대해서도 선별없이 이루어진 조치였다.<sup>23)</sup> 이것은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반공국가의 형성 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교육제도 안쪽의 논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문교부는 “명년도부터는 반드시 검정된 교과서를 사용”<sup>24)</sup>해야만 한다는 교과서 통제 조치 아래, 친일작가와 좌익 성향 작가를 동일시하는 배제 전략을 사용하였고, 문학독본이라는 검인정 종별에서 유일하게 검인정 심사를 통과한 『新訂 文學讀本』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당시 친일 청산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도 못한 상태에서 감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친

23) 기존의 전국문필가협회 문학부와 한국청년문학가협회를 중심으로 일반 무소속작가 및 친향문학인을 포함한 한국문학가협회 결성식을 1949년 12월 17일에 예정하고 있었다. 이 명단에는 김기림, 이무영, 정지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동아일보>, 1949. 12. 13.

24) <조선일보>, 1948. 10. 12.

일작가의 배제 논리, 그리고 친일작가와 좌익 성향 작가의 동일시하는 전략은 ‘선택-배제’의 이항대립적 정전 구도를 창출하고, 오랜 시간동안 문학교육제도의 소통 회로를 차단한다. 특히, 정지용, 이태준 등의 작품은 제도교육의 안쪽에서 금기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것은 해금 이후에야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둘째, 현진건, 이호석, 장덕조, 박종화, 모운숙, 이병기의 작품과 문일평의 「百濟의 歌謠」가 김인정 심사를 위한 재발행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청년문학가협회의 핵심 간부인 박종화의 작품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은 탈이념적 문학 교재 구성의 방향을 보여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이념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반공주의를 표방하고 있던 당시 문화(문학)계-교육계의 이념적 교류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겠으나, 『文學讀本』의 편저자는 나름대로 이념적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당대 작가들의 작품을 대부분 배제하는 편찬 전략을 취한다.

『文學讀本』에서는 “여러 사람의 글을 文體도 隨筆 紀行文 詩 論文들 넓게 뽑으려고 하였”다. 현대문학 작품은 17장 22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우익 성향의 작가들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新訂 文學讀本』에서는 현대문학 작품이 10장 13편으로 40% 이상 축소되었으며, 수록 작품의 장르도 수필, 논문, 시 등으로 협소해졌다. 김광섭의 「수필문학 소고」, 유진오의 「소설론」, 조운제의 「“은근”과 “끈기”」 등의 문학론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문학 작품은 그 비중이 훨씬 줄어든다. 즉, 현대문학 작품의 경우, 문학성, 혹은 문학 작품의 미학적 자질을 작품 선정의 최고 기준을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셋째, 김진섭의 「窓」, 안재홍 「春風千里」를 수정 발행 과정에서 제외하고, 대신 동일한 저자의 다른 작품으로 교체하였다. 김진섭 「채루송」, 안재홍의 「민족문화의 진로」가 그것인데, 이것은 ‘선택-배제-선택’의 양상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안재홍의 「春風千里」 대신 「민족문화의 진로」가 선택된 것은 단순한 제재 교체가 아니라, 『文學讀本』의 수정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민족 문화 건설, 즉 “애국적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하루 속히 독립국가로서의 민족문화를 건설”<sup>25)</sup>이라는 당

대의 테제를 수용한 것이었다.

조선은 그 산하가 수려하고 풍광이 명미함과 같이 그 인민도 매우 충명, 성실하고 강인 근면하다. 그러나 상대에 있어서는 한토 문화의 거대한 침식으로 말미암아 그 독자적 성장 발전의 길을 마음껏 밝아보지 못하였으며, (...중략...) 이를 광정하려면 무엇보다도 문화-민족 문화 순화 양양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나, 그것은 반드시 현대적 사회적 현실에 조화되고, 다시 국제적인 인류 대동의 사조와 잘 조합 병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또한 이를 테면 저 “홍익인간”의 이상과 같은 것도 그것이 원래 사천수백년 전 단군 건국의 이념으로 되어 있으나 현대에 있어서 대중공생의 신사회를 건설하려 함에도 의연히 새로운 지도 이념이 됨에 아모런 지장이 없다.<sup>26)</sup> (강조-인용자)

안재홍의 수필을 삭제하고, 대신 “민족의 생명에서 구현되는 민족정신의 건전한 양양”<sup>27)</sup>을 위한 전국문화인총결기대회 준비위원을 맡았던 안재홍의 「민족문화의 진로」를 독본의 서두로 삼고 “문화-민족 문화 순화 양양”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였다. “홍익인간”을 민족 공동체의 교육이념으로 제시하고, 동일 민족의 “이상”을 위한 민족 문화 건설에 노력을 기울이지는 것이 논지이다. 편저자는 민족 문화의 동일성, 이것이 좌/우익의 이념적 논리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언어 및 문학교육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담론 효과를 지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28)</sup>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新訂 文學讀本』의 제재를 재조직하면서 가능해진다. 『新訂 文學讀本』에서 작동하고 있는 ‘선택-배제-대체’의 기제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5) 《경향신문》, 1947. 1. 4.

26) 방중현·김형규(1952), 『新訂 文學讀本』, 조문사, 1~5쪽.

27) 《국제신문》, 1948. 12. 21.

28) 편저자 방중현·김형규가 『新訂 文學讀本』을 편찬할 때, 좌/우익의 이념적 편향성에 치우치지 않고자 하였던 것은 민족 문화의 건설과 통합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방중현이 우리말 연구와 우리 시가 연구에 집중하였던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 1949년에 발행된 『古時調正解』가 대표적인 예이며, 그것은 일제강점기부터 지속되었던 과제이자 작업이다.

첫째, 정지용, 김기림, 임학수의 현대시가 배제된 자리에 조지훈의 시 「마음의 태양」이 대체 수록된 양상이다. 물론 이때의 ‘조지훈’은 정지용, 김기림, 임학수와 대립적인 자리에 위치한 시인 누구와도 대체될 수 있다. ‘選’의 형식을 가진 독본(류) 교과서의 우연성인 셈이다. 이것은 미학적 자율성에 근거한 제재 편성이 아니라, 이념적인 논리에 의한 ‘선택-배제-대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제재 삭제와 대체 작업이 모두 편저자의 개인적 취향, 이념, 가치관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文學讀本』을 편찬할 때, 좌/우익의 이념적 지향성에 편중되지 않으려는 시도는 제도교육의 통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유지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解放後 評論의 理念은 두 갈래로 갈라져 하나는 純粹文學派와 非純粹文學으로 前者는 民族陣營 文化의 代辯者로 後者는 右翼陣營 文化의 代辯者로 그 銳利한 筆鋒을 휘둘러 評論界의 큰 刺戟을 준바 있었거니와 己丑年 新年初에는 國際新聞을 통해 金東里, 金東錫 兩氏의 對談은 文學精神 探究에 새로운 示唆을 던져주는바 있었다. 卽 民族文學에 對한 愛情이 充溢하게 되었다. 그 後 非純粹文學派의 非合理的인 活動으로 말미암아 封鎖를 당하게 되자 오래 繼續되어 오던 兩者 對立論은 그치고 말았다. 卽 階級文學論은 筆鋒이 꺾여지고 民族主義 文學論 一色の 諸樣相이었다.<sup>29)</sup>

제1차 교육과정을 전후하여, ‘순수’라는 문학적 표상이 문학교육제도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는데, 국정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연구 성과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정재찬, 1996). 그러나 『新訂 文學讀本』을 통해, 정부 수립 전후를 기점으로 하여 이미 “階級文學論은 筆鋒이 꺾여지고 民族主義 文學論 一色”이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좌/우익의 이념적 편향성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新訂 文學讀本』에서 정지용, 김기림, 임학수 등의 작품이 삭제되고, 조지훈의 시로 대체되는 현상은 한국 문학교육제도의 형성 지점을 포착할 수 있는 또 다른 렌즈가 되는 것이다.

29) 동양문화사편집부 편(1950), 『學生年鑑』, 동양문화사, 113~114쪽.

둘째, 현대문학 작가의 작품들을 대폭 삭제 조치하고, 고전문학 제재를 통해 이를 대체한 양상이다. 『新訂 文學讀本』에서는 현대문학 작품의 수가 대폭 감소되고, 고전문학 작품이 2배 가까이 늘었다. 『文學讀本』에서는 전체 30장 중에서 현대문학 제재가 17장, 고전문학 제재가 13장을 차지하였으나, 『新訂 文學讀本』에서는 전체 39장 중에서 현대문학 제재가 10장, 고대문학 제재가 29장을 차지하는 구성으로 변화하였다. 현대문학 작품은 그 성격을 떠나 이념적 간섭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어떤 성격의 작품이냐가 아니라, 누가 작품을 썼느냐 하는 것이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삭제 조치된 작품들의 이념적 성격이나 미학적 자질이 작품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편저자는 좌/우의 이념적 논쟁을 탈각하기 위해 시비의 대상이 되는 현대문학 작품 자체를 대부분 삭제, 혹은 대체하고 이념적 순수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고전문학’을 문학독본의 대체 제재로 선택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민족 문화의 양양”이라는 문화계의 민족 담론, 그리고 문학계의 전통 담론과 습합되면서, 정전으로서의 지위와 정당성을 승인받고 문학교육제도의 한 지점을 부여받게 된다.

### 3. ‘選’의 재생산과 ‘고전’의 창출

1950년대 민족 담론, 전통 담론은 문학교육제도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이것은 문학교육에서 고전(고전문학/ 중세국어문법/ 국문학사 과목)을 강조하는 담론을 생산하고 형식화 — 문학 교과와의 지배적인 영역 및 과목으로 — 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왜냐하면 고전(고전, 국문학사 과목)은 교육계·문학계의 사상 정비 과정에서도 배제되지 않는 지위와 명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민족 정신을 탐구·학습·실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박형준·민병욱, 2007).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당시에는 교과과정으로 지칭)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어교과의 과목은 필수과정인 국어(Ⅰ)과 선택과정인 국어(Ⅱ)로 나누어



져 있었다. 당시의 실제적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면, 국어(Ⅱ)의 주요 과목이 ‘고전’과 ‘국문학사’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국어(Ⅱ)’의 ‘고전’ 과목에서는 문학독본을 주교재로 사용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기를 전후하여 편찬되고 발행된 김인정 문학교과서(문학독본)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30)</sup>

〈표 3〉 제1차 교육과정기 김인정 문학교과서 목록

수	책명	편저자	학교급	출판사	발행년도	비고	
1	표준 옛글	이병기·정인승	고등학교	신백문화사	1957	인정필	단원별 구성
2	우리 옛글	국어교육연구회	고등학교	한국김인정 주식회사	1958	인정필	
3	고등고문선	이승녕·조훈파	고등학교	창인사	1956	인정필	
4	가려뽑은 옛글	장지영	고등학교	정음사	1957	인정필	
5	고전독본	양주동	고등학교	담구당	1957	인정필	단원별 구성
6	옛글	구자균·김사업	고등학교	사조사	1956	인정필	
7	바른옛글	어문학회	고등학교	동일문화사	1960	인정필	단원별 구성

문학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단원별 학습 목표(성취 기준), 학습 내용, 학습 활동에 의해 제재를 선택하고 또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해방 직후의 문학독본은 그럴만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대의 교육이념과 교육담론, 문학담론 등을 수용하면서, 혹은 그

30) 기존의 연구 목록(박봉배, 1997 : 54~56)을 보면, <표 3>에서 제시한 김인정 문학교과서 외에 손락범·최창국(1956), 『고등국문선』, 형설문화사, 임현도(1961), 『고문교본』, 정연사를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조사 결과 손락범·최창국의 『고등국문선』은 저자 최창국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임현도의 『고문교본』은 “고문독본”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었다. 전자와 후자 모두 ‘인정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목록에 체크하지 않은 문학독본을 발견할 수 있으나, 김인정 심사 통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우선은 제외하였다. 이병기·정인승·백철(1957), 『표준 고등글본』, 신국문화사는 저자 백철이 누락되어 있었으나, 작문교본으로 분류할 수 있어 여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후고를 기약한다.

것에서 탈주하면서 문학교육의 ‘本’이 될 수 있는 텍스트를 ‘擇’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1950년 이후 이미 단위별 구성 체제가 본격화된 국정 국어교과서의 경우, 각 단원의 서두에 단위별 학습 내용 및 학습 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1차 교육과정<sup>31)</sup> 이후 교과서의 편찬 방향이 종래의 독본(읽기책) 형태를 벗어났다는 주장은 틀린 것은 아니다(홍웅선, 1963 : 20). 국어과 선택교과인 ‘국어(Ⅱ)’의 ‘고전’ 과목 교재로 사용되는 검인정 문학교과서 역시 “신교수요목 의거하여 종래의 장르별 편찬 방법과는 달리 주제 중심으로 단위제를 채용하여 엮<sup>32)</sup>는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위별 구성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검인정을 통과한 문학교과서는 기존의 문학독본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選’의 형식을 통해 제제를 선택하고 조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제시한 검인정 문학교과서 7종 중에서 단위별 구성을 취하고 있는 책은 3종에 불과하다. 4종이 여전히 시대별, 장르별로 고전문학 작품을 배열하고 있으며, 단위별 구성을 취하고 있는 3종의 문학교과서 역시 주제별로 제제를 분류하여 배열하였을 뿐 기존의 문학독본에서 취하고 있던 ‘選’의 형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 이 책은 고등학교 국어과 옛글 교재로 엮었습니다. 1. 이 책은 우리 고대 문화의 발전경로를 탐구하여, 우리 조상이 끼쳐 준 유업을 인식하고, 또 계승하기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1. 뽑은 교재는 우리 일상 생활에서 접 근할 수 있는 것을 가리었으며, 이주 옛날 것으로서, 현대 우리의 생활과 거리가 멀다든지, 또는 불교경전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글은, 뽑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뽑은 글이, 분량으로 보아, 좀 많은 듯하나, 각 학교의 형편에 따라, 골라 가르치고 남는 것은, 학생들의 자습에 읽을 거리로 주면, 좋을 것입니다.<sup>33)</sup> (밑줄-인용자)

31) 제1차 교육과정은 ‘교과과정’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논의 전개의 일관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2) 손라범·최창국(1955), 『고등국문선』, 형설문화사, 1쪽.

33) 장지영(1957), 『가려뽑은 옛글』, 정음사, 2쪽.

교과서의 편찬 목적이 우리 문화의 발전 경로를 탐구하여 그 유업을 인식하고 또 계승하기 위한 것, 즉 민족 문화의 창달과 발전에 있는 것이다. 작품의 선정 역시 “고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sup>34)</sup>거나, “각 시대의 중요 작품들을 시대 역순으로 배열”<sup>35)</sup>하였으며, “문학적으로 또는 어학적으로 각 시대의 대표될 만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았”<sup>36)</sup>다. 이와 같이 문학독본(叢)의 문학교과서는 편저자의 “選”에 의해 구성되고, 또 다시 사용자(교사, 학생)의 “選”에 의해 (재)구성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이었다.

방중현의 사망으로 『新訂 文學讀本』은 더 이상 출판되지 않았으나, 해방 직후의 다층적인 교육·문학·문화·정치적 맥락에서 생산된 “문학독본”이라는 양식, 혹은 제도는 1950년대 — 제1차 교육과정기를 관통하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교육제도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면서 존재하였다. 특히 — 『新訂 文學讀本』의 제재 편성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 제1차 교육과정기의 많은 검인정 문학교과서는 ‘고전’ 텍스트를 중심으로 제재를 구성한 문학독본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sup>37)</sup> 문학독본은 고전문학 작품과 중세국어자료를 함께 수록하고 있어서,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와 문학사, 언어, 문화적 가치를 학습하는 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의 사열 기준에 “고등학교 국어과(특히 고전) 학습에 도움이 되는 교재가 채택되어 있나?”<sup>38)</sup>라는 항목을 제시한 것 역시 우연이 아니다. 문학독본의 이와 같은 존재 방식과 교육제도의 재생산 구조는 고전을 한국 문학교육의 정전으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34) 어문학회 엮음(1960), 『바른옛글』, 동일문화사.

35) 국어교육연구회(1958), 『우리옛글』, 한국검인정주식회사.

36) 임헌도(1961), 『古文叢本』, 정연사.

37) 현대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된 문학독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노천명의 『여성서간문독본』, 박문출판사, 1951 ; 박목월, 『여학생문학독본』, 영웅출판사, 1953 ; 김동리·조연현 편, 『현대문예독본』, 정음사, 1953 등이 대표적이다. 김동리·조연현은 “주로 고등학교 국어 부독본으로서 꾸며본 것이 이 책”이라고 하여 교과용 도서로서의 편찬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1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검인정 문학교과서로 재편찬 및 승인받은 것은 아니다. 이 외에 현대문학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이다.

38) 문교부(1958), 『문교기관』,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165쪽.

## IV. 마무리

지금까지 방중현·김형규의 『文學讀本』을 중심으로 문학독본의 형식과 ‘고전’이라는 정전 창출의 과정, 즉 ‘選’이라는 형식을 통해 ‘고전’으로 표상되는 문학정전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방중현·김형규의 『文學讀本』은 문학제도, 문학교육제도 안쪽의 논리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이념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이념적 ‘균형’은 ‘균열’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편저자는 ‘선택-배제-(선택)’, 혹은 ‘선택-배제-대체’의 기제를 스스로 작동시킬 수밖에 없었다. ‘균형’에서 ‘균열’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이념적 ‘편중’과 ‘균질화’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편저자가 택한 것은 이념적 잣대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고전’의 발견이었다. 『新訂 文學讀本』에서 현대문학 작품을 대폭 삭제하고, 고전(고전문학, 중세국어자료 등) 제재를 두 배 이상 편성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하겠다.

이와 같이 방중현·김형규의 『文學讀本』은 국어과 교과용 도서의 역사적 맥락—다층적인 구성·재구성 과정—을 보여주며, 제도의 바깥/안에서 한국 문학교육의 근대적 형식을 생산하던 문학독본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또한 ‘고전’과 ‘국문학사’를 중심축으로 구성된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교육 담론의 형성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문화적 렌즈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텍스트라 하겠다. 물론 이 글은 문학교육제도의 안과 바깥을 다채롭게 재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었을 뿐, 전체 결을 조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제도의 바깥—이를테면, 국가 수준의 검인정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는—에 존재하면서, 제도교육의 한 측면을 담당하고 있던 다양한 문학독본에 대한 접근과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이다.\*

\* 본 논문은 2010. 2. 28. 투고되었으며, 2010. 3. 12. 심사가 시작되어 2010. 3.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 참고문헌

### 1. 자료

- 국어교육연구회(1958), 『우리옛글』, 한국검인정주식회사.  
 동양문화사편집부 편(1950), 『學生年鑑』, 동양문화사.  
 문교부(1958), 『문교개관』,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박장희(1946), 「凡例」, 『國文學選』, 대동사.  
 방중현·김형규(1946), 『文學讀本』, 동성사.  
 방중현·김형규(1949), 『新訂 文學讀本』, 연학사.  
 방중현·김형규(1952), 『新訂 文學讀本』, 조문사.  
 손락범·최창국(1955), 『고등국문선』, 형설문화사.  
 양주동(1948), 『詳註 國文學古典讀本』, 박문서관.  
 어문학회 엮음(1960), 『바른옛글』, 동일문화사.  
 이하운(1946), 『現代國文學精髓』, 중앙문화협회.  
 임헌도(1961), 『古文敎本』, 정연사.  
 장만영 엮음(1952), 『중학생 문예독본』 1~3권, 대양출판사.  
 장만영 엮음(1952), 『고등 문예독본』, 대양출판사.  
 장지영(1957), 『가려뽑은 옛글』, 정음사.

### 2. 논저

- 구자황(2007), “근대 독본의 성격과 위상 (2)－이윤재의 『문예독본』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20집, 198, 상허학회.  
 김득중(2009), 『빨갱이』의 탄생 : 여순사건과 반공국가의 형성』, 48, 선인.  
 김혜정(2004), “해방직후, 국어에 대한 인식 및 교과 형성 과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18집, 국어교육학회.  
 박봉배(1997), 『한국국어교육진사』 상권,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박봉배(1997), 『한국국어교육진사』 중권, 54-56,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박형준·민병욱(2007), “1950년대 문학교육의 지형학”, 『문학교육학』 제24집, 한국문학교육학회.  
 박형준(2008), “해방 직후, 유인본 국어교과서의 발견과 해석”, 『국어교육연구』 제45집, 67-68, 국어교육학회.  
 박형준(2009), “문학교육의 이데올로기와 공론장의 구조 변동”, 『1930년대 문학의 재조명과 문학의 경계 넘기』, 국학자료원.  
 이종국(2008),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130,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정재찬(1996), “현대시 교육의 지배적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재찬(2004), 『문학교육의 현상과 인식』, 역락.
- 최현섭(1990), “미군정기 검인정교과서 소설제재 연구”, 『어문집』, 인천교육대학교.
- 허강 외(2000), 『한국 편수사 연구 ( I )』, 117, 한국교육개발원.
- 허강(2004),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94, 일진사.
- 홍응선(1963), 「國語教科書의 編纂」, 『국어교육』, 20, 현대교육총서출판사.

<초록>

문학독본과 選의 정치학

—방종현·김형규의 『文學讀本』을 중심으로—

박형준

이 논문은 방종현·김형규의 『文學讀本』을 중심으로 문학독본의 형식과 ‘고전’이라는 정전 창출의 과정, 즉 ‘선(選)’이라는 형식을 통해 ‘고전’으로 표상되는 문학정전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방종현·김형규의 『文學讀本』은 문학제도, 문학교육제도 안쪽의 논리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이념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이념적 ‘균형’은 ‘균열’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편저자는 ‘선택-배제-(선택)’, 혹은 ‘선택-배제-대체’의 기제를 스스로 작동시킬 수밖에 없었다. ‘균형’에서 ‘균열’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이념적 ‘편중’과 ‘균질화’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편저자가 택한 것은 이념적 잣대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고전’의 발견이었다. 이와 같이 방종현·김형규의 『文學讀本』은 국어과 교과용 도서의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며, 제도의 바깥/안에서 한국 문학교육의 근대적 형식을 생산하던 문학독본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또한 ‘고전’과 ‘국문학사’를 중심축으로 구성된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교육 담론의 형성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문화적 렌즈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텍스트라 하겠다. 물론 이 글은 문학교육제도의 안과 바깥을 다채롭게 재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었을 뿐, 전체 결을 조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핵심어】 문학교육, 문학독본, 選의 정치학, 방종현·김형규 『文學讀本』, 문학정전

<Abstract>

## A Literary Reader and Politics of ‘Sun(選)’

Park, Hyung-jun

This paper aimed to examine the form of a literary reader and the process of creating a canon, called a classic; that is the process of completing a literature canon presented as a classic in the form of ‘Sun(選)’, which is based on 『Literary Readers』 written by Bang Jong Hyeon and Kim Hyoung Kyu.

『Literary Readers』 tried to get out of the reasoning from literary system and literary education system and to keep a sense of balance in ideology. However, around the establishmen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deological balance was degraded into a crack, and a compiler themselves could not but start a mechanism, ‘selection-exclusion-(selection)’ or ‘selection-exclusion-replacement’. In this situation, a compiler made an effort to free themselves from the reasoning of the ideological unequal distribution and homogenization. What a compiler chose as a way for it was the discovery of a classic, which is somewhat free from an ideological standard. Likewise, 『Literary Readers』 by Bang Jong Hyeon and Kim Hyoung Kyu includes the multi-level of construction process to show historical contexts of a Korean language textbook. And it shows a model of literary readers to create the modern form of the Korean literary education. In addition, it is a meaningful text in that it takes on the role of a cultural lens to identify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the discussion about literary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first curriculum of the Korean mainly focusing on a classic and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However, there’s a limit to this paper in that the suggestion of this paper was just one of the methods to put a literary education system



in more different ways and it failed to grasp the whole system.

【Key words】 Literary education, Literary reader, Literature canon,  
Politics of 'Sun(選)', 『Literary Readers』